

법령 제·개정 동향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3.19.] [대통령령 제35387호, 2025.3.18.,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신규안전교육과 정기안전교육으로 구분하고, 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의 대상·내용 및 방법을 정하며,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8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해당 기간에 실제로 운전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만 제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내용]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32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p> <p>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 안전교육: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p>②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p> <p>③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2.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3.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82호, 2026. 3. 17.,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수집할 수 있고,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수집한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 파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의무화하고, 도로노선, 도로표지 또는 신호기 등의 설치·변경 등을 반영하여 정밀도로지도도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0조의2(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p> <p>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다.</p> <p>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영상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한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수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p>

“헤드라이트 해킹해 후 절도”...커넥티드카 보안 경고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카스퍼스키는 9일 '자동차 산업 사이버 위협 전망 2026' 보고서를 발표하고 차량 구조의 취약점을 악용한 차량 절도 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공격자가 차량 헤드라이트를 통해 차량 내부 통신망인 차량 내부 네트워크(CAN Bus)에 접근한 뒤 엔진 시동 시스템까지 침투한 사례가 확인됐다. 차량 외부 장치를 통해 내부 네트워크로 침투한 뒤 차량 제어 시스템을 장악하는 방식이다. 차량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경로로는 차량 정비용 진단 포트(OBD), 이더넷 포트, 근거리무선통신(NFC) 모듈,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칩, LTE 모뎀 등이 지목된다. (전자신문, 2026.3.9.)

광명시, '안전 편익' 다 잡은 스마트 교통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밀고감

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통 전략과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한 중장기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능형교통체계는 전자 정보 통신 기술을 교통시설과 수단에 접목해 교통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신호 제어나 소통 관리에 활용해 전체적인 교통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시스템이다. 시는 이번 계획에 2036년까지 10년 중장기 로드맵을 담는다. 우선 단기에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통약자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혼잡 완화 등 시급한 과제 해결에 집중한다. (경기시사투데이, 2026.3.11.)

류경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피지컬 AI 기술기업 도약 본격화"

류경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독보적인 기술 주권을 갖춘 '피지컬 AI 기반 기술 기업'으로의 도약 비전을 제시했다. 13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류 대표는 전날 전사 임직원에게 보낸 CEO 레터에서 "일상의 모든 이동을 책임지는 '피지컬 AI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회사'로 거듭나겠다"며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대등하게 경쟁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모빌리티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DX)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기술 인프라가 피지컬 AI 완성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연합인포맥스, 2026.3.13.)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4월부터 유료 전환 ... 운행대수도 확대

2024년 9월 첫 운행을 시작한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약 17개월간의 무료 운영을 마치고 다음 달 6일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택시를 정식 교통수단으로 도입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용 요금은 강남 지역(약 20.4km²) 내에서만 운행되는 것을 감안해 기본요금(심야할증 포함)만 적용되고, 거리와 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 달 6일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2026.3.16.)

익산시, 자율 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

전북 익산시가 자율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에 착수하며 자율주행 기반 교통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시는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자율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사업은 KTX 익산역과 주요 도심 거점을 연결하는 약 10km 구간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영철 건설국장과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 교통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사업 계획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시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이달까지 실시 및 설계를 마무리하고 SK텔레콤 컨소시엄과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경제TV, 2026.3.17.)

"포트홀·역주행도 먼저 본다"...고속도로 지키는 시의 눈

고속도로 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포트홀이나 예상치 못한 빗길 수막현상은 운전자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다. 최근 이런 위험을 인공지능(AI)이 먼저 찾아내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147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사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로 안전 관리가 사고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 캠페인이나 단속을 넘어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고 원인을 미리 찾아내고 대응하는 방식으로 교통 안전 관리 체계를 바꾸고 있다. (뉴스1, 2026.3.16.)

카카오맵, BTS 광화문 공연 앞두고 '초정밀 버스 위치' 제공

카카오맵이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이용자 편의와 안전을 위한 대응에 나선다. 카카오는 카카오맵에서 16일부터 서울시 시내버스 420여개 노선에 초정밀 버스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초정밀 버스 서비스는 파일럿 형태로 운영되며 공항버스와 마을버스를 제외한 주요 시내버스 노선에 적용된다. 이번 파일럿은 오는 21일 BTS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공연에 수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2026.3.16.)

“공장 밖 물류까지 자율주행”...에티포스-에스유엠, 5G-V2X로 산업현장 무인화 추진

산업 물류 자동화가 공장 내부를 넘어 옥외 이송 공정으로 확장되고 있다. 자율주행과 통신 기술을 결합해 항만·물류야드까지 무인화 범위를 넓히는 흐름이다. 에티포스는 18일 에스유엠과 5G-V2X 기반 자율주행 및 관제 연계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항만과 메가 허브, 메가 팩토리 등 대규모 산업 거점을 대상으로 옥외 이송 공정 자동화를 공동 개발한다. 제한된 구역에서 운용되는 자율주행 차량을 기반으로 외부 물류 흐름까지 통합하는 구조다. (전자신문, 2026.3.18.)

해외 토픽

인터트래픽 암스테르담 2026: “ITS 기술 현장 도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Zero 달성해야”

전 세계 교통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인터트래픽 암스테르담(Intertraffic Amsterdam) 2026’이 막을 올린 가운데,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술을 통한 인명 구조가 이번 행사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에인트호번 공과대학교(TU Eindhoven) AI 연구소의 CEO이자 ITS 전문가인 카를로 반 데 웨이어(Carlo van de Weijer)는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교통 산업은 기술 혁신을 통해 현재의 안전 위기를 스스로 돌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트래픽 현장을 찾은 전 세계 관계자들에게 단순한 참관을 넘어 적극적인 교류와 논의를 제안했다. (ITS International, 2026.3.10.)

우버 창립자, 로봇·자율주행으로 업계 복귀...자율주행 대부와 손잡아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를 공동 창립한 기술계의 거물 트래비스 캘러닉이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스타트업 아톰스(Atoms)로 기술 산업에 복귀했다. 특히 '자율주행의 대부'로 불리는 앤서니 레반도프스키와 손잡았다는 사실로 주목받았다. 그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선언문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는 로봇을 만들어 사회와 기업 모두에 풍요를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사람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라,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 산업용 로봇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식품 생산 자동화와 산업용 로봇 기술을 핵심 사업으로 꼽았다. (AI TIMES, 2026.3.14.)

툼툼(TomTom), 스크린리스 도로 알림 비서 ‘Tom’ 출시... “운전 집중도와 안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글로벌 위치 기술 전문 기업 톼툼(TomTom)이 운전자의 시선 분산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필수적인 도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스크린리스(Screen-free) 도로 알림 비서 ‘Tom’을 출시했다. 최근 교통 환경은 급격한 정체, 예기치 못한 장애물, 단속 카메라 등 운전자가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할 정보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톼툼은 이러한 정보 과잉이 운전자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린다는 점에 착안하여, 화면을 보지 않고도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직관적인 보조 장치를 개발하였다. (ERTICO, 2026.3.18.)

아마존 자율주행 자회사 죽스(Zoox), 미국 오스틴·마이애미로 로봇택시 서비스 전격 확대

아마존(Amazon) 산하의 자율주행 기업 죽스(Zoox)가 텍사스주 오스틴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자사 전용 로봇택시를 도입하며 서비스 영토 확장에 나섰다. 죽스는 지난 2년간 해당 도시에서 진행해 온 테스트 차량 운영을 마치고, 올해 하반기부터 ‘얼리 라이더(Early-rider)’ 프로그램을 통해 본격적인 승객 운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죽스는 신규 도시 진출과 더불어 기존 운영 지역인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이거스에서의 서비스 규모도 대폭 키우기로 결정하였다. (TechCrunch, 2026.3.24.)

공공조달 발주동향

본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공공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으로, 특정 검색어(ITS, BIS, 교통정보, 첨단교통 등)로 검색된 발주정보('26.3.31. 기준)를 요약하여 정리한 자료임
검색일 이후 등록되었거나 미리 설정한 검색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누락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별도 확인 필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

사업유형	국비 지원규모	사업기간	신청서 접수기간
'26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최대 160억원	3년 ('26~'28년)	'26.5.11.(월) ~ 5.13.(수)
'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최대 80억원	3년 ('26~'28년)	'26.5.11.(월) ~ 5.13.(수)
'27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최대 80억원	3년 ('27~'29년)	'26.3.13.(금) ~ 4.30.(목)

국토교통 AX(AI Transformation) 사업 공고

사업명(전담기관)	유형① 지원규모	유형② 지원규모	모집마감일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KAIA)	과제별 최대 28.5억원 × 1년	과제별 최대 28.5억원 × 1년	2026.04.20.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 (ITS Korea)	과제별 최대 28.5억원 (14.25억원 × 2년)	과제별 최대 28.5억원 (14.25억원 × 2년)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업무	공고명	수요기관	설계가격(원)	입찰마감일
일반용역	2026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보안성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한국교통안전공단	452,000,000	2026. 04. 27.
일반용역	제5차 대전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대전광역시	102,000,000	2026. 04. 10.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사업목적

- ◎ 교통 혼잡, 기후위기,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인공 지능·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

공모내용

사업유형	'26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27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선정 지자체수	1개소	2개소	3개소 이내
사업목적	스마트도시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스마트 거점으로 기업지원 기능과 스마트한 공간구조가 결합된 도시 조성	도시여건을 반영한 첨단기술 실증 지원 환경 구축을 통해 민간 혁신기업에 친화적인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 조성	기후위기, 지역소멸, 첨단모빌리티 등 도시 환경변화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화솔루션이 집약된 도시 조성
세부유형	단일 유형	단일 유형	· 기후위기 대응형 · 지역소멸 대응형 · 모빌리티 특화형
지원대상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인구 100만 이하*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모빌리티 특화형은 제외)
추진체계	지방정부 주관, 기업 등 공동 참여	지방정부 주관, 기업 등 공동 참여	지방정부 주관, 기업 등 공동 참여
사업기간	3년 ('26~'28년)	3년 ('26~'28년)	3년 ('27~'29년)
국비 지원규모	최대 160억원	최대 80억원	최대 80억원
사업비	320억원 (국비+지방비)	160억원 (국비+지방비)	160억원 (국비+지방비)
신청방법	공모	공모	예산신청
신청서 접수기간	'26.5.11.(월) ~ 5.13.(수)	'26.5.11.(월) ~ 5.13.(수)	'26.3.13.(금) ~ 4.30.(목)

관련 사이트

-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 ◎ 스마트시티 종합포털(www.smartcity.go.kr)

국토교통 AX(AI Transformation) 사업

사업개요

- ◎ 국토교통 산업 AI 고도화, 신시장 창출 및 국민체감도 확산 등을 위해 AI 기술이 접목된 제품·서비스의 신속 상용화 지원

자원분야

- ◎ (국토·교통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국토·교통)

구분	분야	세부설명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국토	국토지능화·도시공간정보, 건축·주거 환경 · 다양한 센서 정보를 AI와 융합하여 디지털트윈 국토를 구현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확산과 도시계획의 지능화 지원, 건축물 에너지 관리 등 정보화를 통해 국민 체감형 생활환경 고도화를 실현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 등
		시설물 설계·해석 및 안전·유지관리 · 건축정보모델링 기반 설계 자동화 및 구조 해석을 지원하고, IoT 센싱과 AI를 활용하여 공동구 등 주요 SOC 시설물의 결함을 선제적으로 예측·진단하며, 생애주기 유지관리 최적화를 통해 시설물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및 서비스 등
		건설시공 및 재료 · 로봇 등을 활용한 건설공정 자동화 및 무인 원격 시공을 구현하고, AI 영상분석 기반 건설현장 안전 통합 관제로 재해율을 저감하며, 콘크리트 등 건설 재료의 성능·품질 분석 및 친환경 신소재 적용을 통해 건설산업의 생산성·안전성·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기술 및 서비스 등
	교통	철도 · 철도 차량·궤도·신호·전력 등 핵심 설비의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데이터를 시로 분석하여 고장 징후를 사전 검지하는 상태기반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고, 열차 운행계획 최적화·역사 내 이용자 안전 확보 등 운영 전반의 지능화를 통해 철도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및 서비스 등
		항공 및 물류 · AI 기반 원격관제 및 첨단 항행안전시스템 고도화로 항공교통 안전성과 공항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에 대응한 무인기 교통관리체계 관련 기술·서비스 등 · 로봇·드론 등 차세대 물류 수단 상용화와 물류 운송·보관·하역 전 과정의 AI 기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공급망 가시성 확보 및 물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및 서비스 등

◎ (도로·모빌리티분야)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

구분	분야		세부설명
디지털 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	도로	위험재난 대응 및 선제적 안전관리	· AI 기반 센서·영상 데이터 융합·분석으로 도로 위 위험 상황을 탐지·예측하고, 자동 경보 및 대응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도로 안전을 극대화하는 기술 및 서비스 등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최적화·자동화	· 도로 관련 시설물*을 AI 정밀 진단으로 손상·노후화를 조기에 식별하고, 유지관리 의사결정 자동화 및 피지컬 AI 장비를 활용한 자율 점검·보수를 통해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및 서비스 등 * 도로, 교량, 터널, 노변시설물, 교통관제시스템 등
		교통운영 지능화	· 실시간 교통흐름 예측을 기반으로 신호 운영, 차로 제어, 돌발 대응 등 AI 기반 교통관리 최적화를 통해 도로교통 효율 극대화 및 탄소 저감을 실현하는 기술 및 서비스 등
	모빌리티	모빌리티 서비스 최적화	· 이용자 패턴, 실시간 교통 수요 및 교통상황을 학습·분석하여 AI 기반 맞춤형 최적 경로 및 수단 추천과 실시간 연계·조정을 통해 이동·배차 효율과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및 서비스 등

신청방법

- ◎ (공고기간) 2026. 3. 19.(목) ~ 2026. 4. 20.(월), 18:00 까지
- ◎ (접수기간) 2026. 4. 6.(월) ~ 2026. 4. 20.(월), 18:00 까지
- ◎ (접수방법) 지원사업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
 - (국토·교통)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hub.kaia.re.kr)
 - (도로·모빌리티)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https://www.bojo.go.kr>)
- ◎ (제출서류) ① 신청 공문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그 외 제출서류

문의처

지원사업명	전담기관	연락처	이메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국토·교통)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31-389-6537	bizhub@kaia.re.kr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031-478-0419	axsprint@itskorea.kr

2026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보안성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과업개요

- ◎ 과업명 : 2026년 수요응답형대중교통(DRT) 보안성개선 및 운영 유지관리 용역
- ◎ 과업예산 : 452,000,000원(부가세 포함)
- ◎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2027.04.30.까지(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 착수일 ~ 2026.12.31.까지
 - 2차년도 : 2027.01.01. ~ 2027.04.30.까지
-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90%, 가격 10%), 장기계속계약

주요 과업내용

- ◎ 수요응답형대중교통(DRT)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
- ◎ 수요응답형대중교통(DRT)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 ◎ 차세대 수요응답형대중교통(DRT) 시스템 전환을 위한 기능 강화
- ◎ 수요응답형대중교통(DRT) 서비스 운영 지원

과업 배경 및 목적

- ◎ 농촌 대중교통 유지를 위한 지방재정부담 심화에도 불구하고, 운수업계의 재산성 악화로 대중교통 운행 감소 및 서비스 저하의 악순환 지속
- ◎ 노선버스 수송분담률 지속 하락으로 운영 적자 심화 및 지방 축소로 인해 지방 노선버스 수요 감소 가속화
- ◎ 과소화·공동화가 심한 농·어촌 지역의 이동권 보장과 고령층의 의료·복지문화 접근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이동서비스 제공

문의처

- ◎ 한국교통안전공단 송승진 선임연구원(054-459-7447)

제5차 대전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개요

- ◎ 용역명 : 제5차 대전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 ◎ 용역비 : 금102,000,000원(부가세 포함)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필요
- ◎ 특히, 대전광역시는 고령자 증가, 3칸 굴절버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등 사회 여건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 본 용역은 대전광역시의 교통수단, 교통시설 또는 교통사업자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 등 교통체계와 교통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포함하고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및 그 밖에 육상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함

과업범위

- ◎ 공간적 범위 :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전역
- ◎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27~2031년(5개년)
- ◎ 내용적 범위
 - 제4차 대전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22~'26) 추진 성과 및 실적 분석
 - 교통체계 현황 파악,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 5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추진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설정
 -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중장기 시행계획 수립

문의처

- ◎ 대전광역시 교통시설과(042-270-0761)

ITSK NEWS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 공모… 4월 6일부터 접수 시작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회장 허정희, 이하 '협회')가 전담기관으로 나서는 국토교통부의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 통합공고가 지난 3월 19일 발표되며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이번 사업은 도로 및 모빌리티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신속한 상용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본 사업은 크게 도로와 모빌리티 두 가지 분야의 AI 융합서비스 및 모델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AI 기반 위험 상황 탐지 및 재난 선제적 대응 ▲교량, 터널 등 도로 시설물 노후화 진단 및 유지관리 자동화 ▲신호·차로 제어 등 교통운영 지능화 ▲이용자 맞춤형 경로 추천 등 모빌리티 서비스 최적화가 주요 내용이다.

사업은 기업의 목표와 준비도에 따라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 지원된다. 단기간 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타입1(Agile)' 트랙은 1년간 (26.06~27.05) 최대 28.5억 원을 7개 내외 과제에 지원하며, '타입2(Build-up)' 트랙은 1.5년간 (26.06~27.12) 연 1.425억 원 규모로 5개 내외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신규 채용 인력의 인건비, 시제품 제작 및 데이터 구축비, AI 분석용 GPU 클라우드 임대료, 장비 임차비 등 상용화에 필요한 실소요 경비를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본 사업이 범부처 'AX 스프린트(AX Sprint)' 우대트랙과 연계된다는 것이다. 우수 성과물은 조달청의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어 공공기관 시범구매를 통한 초기 판로 확보가 가능하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혁신성장지원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 등 정책자금 신청 시 우대금리 인하(0.1%p) 혜택은 물론,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60억~100억 원까지 우대받을 수 있어 선정 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본 공모의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6일(월)부터 4월 20일(월) 18시까지다. 지원 자격은 도로·모빌리티 분야 기술 성숙도를 갖춘 단독 기업 또는 컨소시엄이며, 주관기관은 반드시 영리기업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은 주관기관이 컨소시엄 내 모든 기관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취합해 협회에 제출한 뒤 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돌입할 예정이다.

